The Christian Herald U.S.A.
크리스천헤럴드
www.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 1977년 10월 21일 창간 · 통권 제 1835호 THURSDAY, APRIL 19, 2018 2975 Wilshire Blvd., Suite 540, Los Angeles, CA 90010 T. 213.353.0777 F.213.353.9777

영적 전쟁의 승리자되어 비전을 펼쳐가는 성시화운동본부

미주 LA 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창립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미주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이하 미주 성시화)가 15일(주일) 오후 5시 LA소재 소망선교교회(담임 조은철 목사)에서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창립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 상임본부장) 인도로 시작돼, 박종술 목사(순무브먼트) 찬양인도, 옥세철 장로(LA홀리클럽 회장) 감사기도, 송정명 목사 환영인사,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 공동총재) 영상 축하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김기원 교수(미주성시화)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인도자가 미주성시화 15년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김수희 권사(여성홀리클럽 부회장) 성경봉독, 하프연주(여성홀리클럽 최순복 권사 외), 진유철 목사(공동회장) 설교, 박희민 목사(초대 대표회장) 영상축하, 김완중 LA총영사, 서영석 장로(LA평통회장) 축하인사, 최문환 장로(미주성시화 이사장) 감사인사, 김경수 장로(미주홀리클럽 회장) "나의 홀리클럽 15년" 소개가 있은 후,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 축도로 1부 감사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식사와 교제시간은 한기형 목사(상임회장) 인도로 CCC SMTC 찬양팀의 "그리스도의 계절" 특송을 시작으로 하여 임원과 내외빈들이 함께 성시화 1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익 커팅식을 가졌다. 축하케익 커팅식 후에는 이날 참석한 축하객들 소개와 인사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백은학 장로(LA 홀리클럽 증경회장)의 식사 기도로 2부 행사를 이어갔다.

송정명 목사는 성시화 운동의 기원과 김영배 교수(호서대학교)가 겪었던 성시화 운동의 영향력 이야기로 환영사를 대신했다.

진유철 목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갈멜산 영적 전쟁"(왕상 18:36)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시화 15주년을 맞이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성시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편으로 돌아서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놀라운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2에 계속〉

창립15주년과 사무실 이전 감사 축하케익을 컷팅하고 있다.

예배를 마친 후 성시화 및 홀리클럽 관계자 및 축하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편성표 안내 CHTV56.9 A7 AM1650라디오 B4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제39회 미주성결교회총회 영어권 2세 교회 설립추진 교회부흥과 선교전략 등 주요 현안 토의 및 결정

미주성결교회 39회 총회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LA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린다.

미주성결교회는 1907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한국 땅에서 전파하여 3대 교단으로 부흥을 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출신 교역자들이 미주 땅에 유학, 또는 이민으로 와서 1973년 나성성결교회에서 목사 12명, 장로 1명으로 미주 지방회를 조직했다.

그 후 1980년에 제1회 미주성결교회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로 올해로 39회 째를 맞이했다.

미주성결교회총회는 미주 지역에 현재 11개 지방회를 비롯, 200여 지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회되는 정기총회에는 150여 명의 대의원이 모여 교단의 현안 문제들과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이란 주제로 모이는 이번 총회에서도 총회 차원에서의 영어권 2세 교회 설립추진, 교역자 상조회 발족, 지 교회 부흥과 선교전략 등 여러 중요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16일 개회 첫날 오후 등록 후 저녁 7시 30분에 첫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걸친 회의와 수요일 저녁 목사안수예배, 목요일 하루는 지역 관광,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주최 모교후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갖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영인 기자

제39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연목회 회장 이취임식

4월29일(주일) 사우스베이선교교회서

취임 조종곤 목사·이임 김기동 목사

남가주연세목회자회(이하 연목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는 29일(주일) 오후4시30분 사우스베이선교교회(담임 조종곤 목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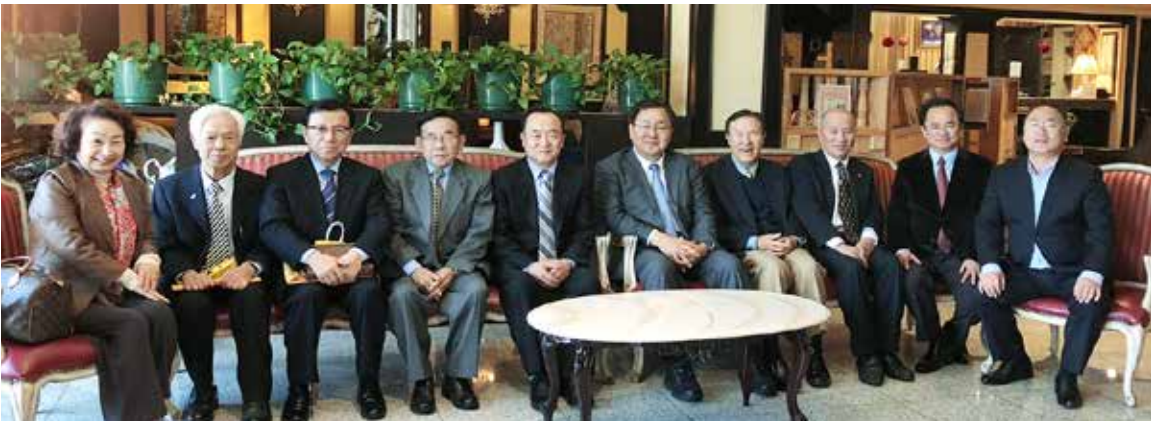
앞서 3월 14일 LA소재 로텍스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조종곤 목사(연신원)와 수석부회장 신명균 목사, 총무 정효남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제17대 연목회(회장 김기동 목사)는 작년 한해 동안 어려운 이웃과 타민족들을 돕기 위한 연세사랑의 "나눔콘서트"와 "사랑의 컵라면 나눔" 행사를 열어 좋은 호응을 받았었다.

이 행사에는 많은 동문과 교회와 단체들이 뜨거운 후원으로 함께해 1, 2차에 걸쳐 104 단체와 개인 7004 명에게 총 4279상자(1상자 6개)을 나눠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펼쳤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조종곤 회장은 연신원에서 수학하였으며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연목회 이취임식에는 김정복 목사가 설교하고 영김 전 주하원의원, 박영선 OC시민자협의회 회장, 도성환 남가주연세동문 회장, 이정근 목사, 남가주연세콰이어 등의 축하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일시: 4월29일(주일) 오후4시30분
△장소: 사우스베이선교교회
△주소: 25512 Walnut st, Lomita, CA 90717
△문의: 714-353-8501 (정효남 총무)

남가주연목회 전현직 임원들.(왼쪽부터 다섯 번째) 신임회장 조종곤 목사, (여섯 번째) 이임 김기동 목사.

믿음의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

성서장로교회 창립49주년 부흥성회

(왼쪽)성서장로교회 김병용 목사와 (오른쪽)강사 양병화 목사.

가디나 소재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 창립49주년 기념 특별부흥성회가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14일(토) 새벽집회는 박찬송 목사(부천동원교회 담임)가, 오후 집회(7시30분)는 양병화 목사(태국선교사)가, 15일(오전11시 예배)에는 채복남 목사(목포한일교회 담임)가 각각 집회를 인도했다.

두 번째 집회를 인도한 강사 양병화 목사는 "믿음의 선교 동역자들"(롬 16:1-2)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집회는 김병용 목사가 인도 하고, 윤갑식 장로 대표 기도, 이호연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나는 태국에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며, 나 자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지만 현장에서 한센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바울이 거듭 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서장로교회는 인도네시아(전신욱 선교사), 사랑의 동산(김운년 목사), 부모님선교회(박웅기 목사), 멕시코 선교후원(이영순 선교사), 세계기독간호재단(이영현 권사), 중국 길림성 선교(이희순 선교사) 등에 선교 지원을 하고 있다.

△주소: 1655 W.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문의: 310-515-7207

엘피스사역원 사모힐링캠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엘피스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에서는 척박한 이민 개척교회의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힐링캠프〉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15명정도로 제한한다. 관심있는 개척교회 사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일시: 5월7일(월)-9일(수)
△장소: 5805 Armada Drive, Carlsbad, CA 92008
△문의: 213-700-9928
△대상: 목회자 사모
△회비: 50불

기억이 사라지는 그 날 "치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사장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오는 21일(토) 오전10시부터 1시30분까지 LA소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치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나와 알츠하이머의 현재와 미래 치료법, 치매에 관한 지역사회 지원, 치매 환자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 등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해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렸던 포럼에서는 400여명 이상이 참가하며 치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병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간단한 점심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2천불 상당의 치매 진단권이 제공되며 관련부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시: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1시30분
△장소: 동양선교교회
△주소: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문의: 562-977-4580

〈A1에 이어〉

영적 전쟁의 승리자되어 비전을 펼쳐가는

성시화운동본부

이날 김완중 LA총영사를 비롯하여 많은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시화 창립 15주년과 사무실 이전을 축하했다.

홀리여성클럽에서는 저녁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더욱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갖게한 가운데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한편,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명예)국제총재 박희민 목사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상임회장 한기형 목사 △ 공동회장 진유철 목사, 신승훈 목사, 박성규 목사, 한기홍 목사, 김상돈 목사, 임현수 목사

△이사장 최문환 장로 △미주홀리클럽 회장 김경수 장로 △LA 홀리클럽 회장 옥세철 장로 △여성홀리클럽 회장 최순복 권사 △상임본부장 이상우 목사 △총무 최승목 목사

△주소: 621 S Virgil Ave, #455 LA, CA90005
△문의: 213-384-5232

김미경 기자

월드미션대

"비영리단체 사역 수료증 과정" 개설

총장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에서는 선교학의 화두인 "선교적교회 차원에서의 NGO/NPO사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수료증 과정(총 5과목)를 개설한다.

본 과정의 개설 과목은 "비영리단체 사역의 선교적 이해와 실천, 모금 및 캠페인, 비영리단체운영 및 홍보마케팅, 국제개발사업(ODA)DP 대한 이해와 실천/국제기구와 글로벌 NGO의 개요와 펀드, 기업의 사회공헌 및 비영리단체의 연계" 각 1학점씩 개설된다.

강사로는 임진기 교수(휴먼앤휴먼인터내셔널 사무총장),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아 교수(한국컴패션 마케팅 차장), 민준호 교수(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 팀장), 임진호 교수(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연구부장), 김도영 교수(한국비영리학회 이사,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

온라인으로 총 40시간을 강의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수강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오는 여름학기부터 시작하며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름학기는 오는 6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열린다.

△참조:www.wmu.edu
△문의: 213-388-1000

기독교국제금주학교

"1차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

제1기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국제금주학교(대표 김도형 목사, 이하 CITS)는 1차 전인화 리더교육 수료식을 5일 뉴욕나눔의집(박성원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1기 전인화 리더교육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7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용수, 이종수, 배창우, 우정국, 김용철, 김종오, 성영호)

임영건 목사는 욥 8:5-7 말씀을 통해 "과거의 나를 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김도형 목사(CITS 대표)는 수료생들에게 권면의 말로 "신적인 속성을 지닌 인생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다"라며 "지난날 폐인과 같았던 나를 사용하셔서 현재 몇 백 명의 중독자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고 계신다. 실망,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며 살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1부 수료 예배는 박성원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양민석 목사의 기도, 수료자의 특송, 임영건 목사(열린교회 담임)의 설교, 교협부회장 정순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수료식은 한국 KNAADAC 대표 최정미 목사 인도로, 김도형 목사의 권면, 수료증 수여, 수료생의 4주 교육 소감, 케익 커팅, 교협 증경회장 이종명 목사의 축사, 김길홍 목사의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촬영에 이어 손한권 목사의 기도 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문석진 기자

새로 임직된 임직자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러싱제일교회 **"장로, 권사, 집사 총 62명 임직"**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15일(주일) 오후 4시 임직 예배에서 장로 5명, 권사 35명, 집사 22명 등 총 62명을 임직했다. 이날 교회는 연회 재건을 위한 후원을 위해 10만 달러를 연회에 전달했다.

토마스 비커슨 감독(Bishop Thomas J. Bickerson)은 "우리가 가진 것을 아는 것"(요일 3:1-7)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명성보다 친밀함을 원하셨다. 주님은 왕의 지위나 CEO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위치보다는 관계를 권력보다는 친밀함을 택하셨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부름 받았다. 임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탄생부터 늘 함께 있었음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예배는 김정호 목사의 인도로, 장로 임직식은 이용면 목사(동북부 한인연회 감리회 연합회장)의 집례로 이뤄졌다.

이어 권사 임직식은 양민석 목사의 집례로, 집사 임직식은 담임 목사의 인도로 각각 진행됐다.

문석진 기자

시 론

독성경지의(讀聖經之意)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본지 논설위원

"성서는 인간의 마음과 대화하기 위하여 수백 개의 언어를 배웠다. 어린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식인들은 생활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악인과 오만한 이는 그 경고에 떨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참회하는 사람은 사랑스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H. Van Dyke)."

성서는 마음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인간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간교한 짓으로 이를 탈취한 이세벨의 사악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만의 모함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필사의 마음도 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의 대담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여자 종복의 고발 앞에서 결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또 다른 연약한 마음도 있다. 그러나 그 무엇에도 비교될 수 없는 성서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보잘 것 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며,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죄인 대신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서를 읽는 이유이다.

성서는 눈이다. 거기에는 각양 각색의 눈이 있어 성서 독자들의 눈을 주목한다. 예수님의 교훈과 메시지라면 무엇이든 반대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편견의 눈이 있고 자신의 창조자를 못 박았던 군중들의 무지의 눈이 있다. 요셉의 순결한 육체를 유혹하였던 보디발 아내의 흘리는 눈이 있는가 하면 결단코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던 욥의 성결한 눈도 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성서의 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예수님의 눈물어린 눈이다. 이 눈에 서린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 성서를 읽는 의미이다.

성서는 입이다. 인간사의 천차만별의 굉음과 언어들이 거기에서 비롯된다. 하와를 꾀어냈던 유혹자의 소리가 흘러 나왔던 입으로부터, 광야에서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소리들이 퍼져 나왔던 입이 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엄위함이 울려났던 거룩한 입술이 있는가 하면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예언자들의 도전의 입술이 있다. 더욱이 성서에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내어 쉬며 "다 이루었다"고 구원에의 마지막 예언을 외치시던 예수님의 최후의 입술이 있다. 바로 그 마지막 입술의 외침을 묵상함이 성서를 읽는 의도이다.

성서는 귀이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브라함의 귀가 있고 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있다. 영생의 말씀을 결단코 들을 수 없었던 불신앙의 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마리아의 귀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고통 받아 신음하는 소자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귀가 있다. 이 존귀한 귀의 가치를 찾는 것이 성서를 읽는 이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성서는 손이다. 시기와 불신앙으로 응어리진 혐오를 발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손이 있는가 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손도 있다. 축복을 얻기 위해 아비 이삭에게 양털 단 손을 내민 야곱의 위선의 손이 있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로 더불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얼싸안은 아버지의 사랑의 손도 있다. 결코 죄 없으셨던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던 죄악의 손이 있는가 하면 부활케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칼 든 손도 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성서의 손은 우리 주님 예수의 못 박힌 손이다. 우리의 손가락을 그 손의 못 자국에 넣어 보는 것이 성서를 읽는 의의이다.

성서는 발이다. 발은 오고 간 긴 역사를 무엇보다도 잘 그려낸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어 버린 아담의 발이 있고 광야에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밟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고통의 발이 있다.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진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손길이 매만져 진 제자들의 부끄러운 발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디든지 나아가던 제자들의 또 다른 아름다운 발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가장 위대한 발은 인간들의 온갖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를 오르시던 예수님의 발이다. 이 발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성서를 읽는 목적이다.

성서는 머리이다. 머리는 사령탑이다. 지혜가 거기로부터 나며 인생은 그에 따라 결정된다. 세상 너나없이 선호할 것들을 마다하고 오로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머리는 그 지혜를 담기에 합당했던 현명한 머리며 헤롯의 딸의 입을 벌린 사탄의 머리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극악한 교만의 머리다. 뱀에게 뒤꿈치를 물린 여자의 후손은 예언 그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의 주권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머리가 있다. 이는 인간 대신 고통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머리이다. 이 가시 면류관을 눈물로 바라보게 함이 성서독자들에게 주어진 성서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우리의 의식을 점유해야하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잡아야 하고 우리의 장래를 인도해야 한다. 성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라. 성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것을 열려진 눈으로 주시해 보라. 성서가 당신을 쳐다 볼 것이다. 입을 크게 열어 소리 내어 읽어 보라. 당신의 생애를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 메아리는 당신의 영혼을 삼켜 버릴 것이다. 당신의 손으로 성서를 넘겨보라. 성서의 매 장 매 페이지가 당신의 손을 휘어잡으리라. 성서가 가리키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보라. 그 곳은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서의 구절구절을 당신의 머리에 담아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서는 지혜의 원천이요 기쁨의 샘이요 평안의 근원이다. 성서는 인류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영원히 남을 진리의 말씀이며 심판의 날에 인류를 가늠할 책이다. 성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약속하며 이를 무시하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하고 인생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영생의 복된 소식이다.

한기총, 제29-1차 임원회 열어

임명된 공동회장은 예장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 외 23명

한기총 제29-1차 임원회가 열린 가운데 공동회장과 공동부회장 등 신임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12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1차 임원회를 열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 제29회기 신임원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30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공동회장은 허창범 총회장 외 23명, 공동부회장은 22명이 각각 임명됐다.

기타 안건으로 한기총과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통합에 관한 내용은 지난 4월 3일과 6일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태희 목사가 보고했고 향후 임원회에서 기타 안건이 아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총회는 지난 실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비와 교단 회비를 입금하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음을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은 가입교단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최충하 목사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하였음을 보고했다.

이은재 목사가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엄신형 목사는 "총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은재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회장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이병순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엄신형 목사(증경대표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김민수 기자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 3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

4월 16일 한돌교회서... 발제자 이승구 박사 · 신현우 박사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대표 림헌원 목사, 이하 기진협)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해 16일 한돌교회에서 3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와 신현우 박사(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총신 신대원 전 교무처장, 기진협 신학자문위원)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림헌원 목사.

이승구 박사는 한국교회에 침투한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분석하며, 어수선한 한국교회가 고쳐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세계관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물으며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이승구 박사.

신현우 박사는 마가복음 2장 23-28절을 연구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사본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신 박사는 이 논문 발표를 통해 율법폐지론자들에 의해 최근 주일성수를 소홀히 하려는 경향과 십일조 등 신학의 기본 원리에서 실천적 주제까지 명쾌하게 제시했다.

신현우 박사.

림헌원 목사는, "3년을 유지해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진리 수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해는 부활교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면서 참여금지를 이끌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약칭:기진협)는 2015년 4월20일(월) 첫 출범을 했다.

본 협회는 시대마다 성경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자들과 연구단체들이 말씀을 오용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에 이를 견제하려고 성경의 바른 번역과 바른 해석을 통해 바른 신학의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 등을 올바르게 정리하여 바른 교회를 위한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감있게 연구 및 발제하는 역동적인 모임이다.

기진협에는 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원장), 이창모 목사(방언 그 불편한 진실의 저자), 채경호 박사 등 유수의 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참고: blog.naver.com/one-stone119

이영인 기자

조각글

목사 지망생이 늘어났으면

이정근 목사
본지 초대 주필

내가 사는 은퇴마을 한인들과 둘러앉아 담소를 한적이 있다. 서로 이름 교환이 끝나면서 은퇴 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이 오고갔다. 그래서 은퇴 목사라고 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도 한인목사가 뭐 한 30명 된다던데요" 그래서 교회마다 밥그릇 싸움질이 그토록 심한 것 아니냐는 핀잔이었다.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목사 지망생이 모자라서 야단들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신학대학교들도 입학지원자가 줄어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는 목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냐고 따져 묻는 이도 있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 기근입니다. 신학대학교 지망생들이 현저히 줄고 있어요. 게다가 좋은 대학교 출신들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이름 있는 신학대학 총장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말하자면 교회들이 자격 있는 목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교회는 큰일 중의 큰일이다.

성경은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민27:16-17; 겔34:5; 슥13:7). 이 사실을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다(마 26:31).

목회자를 육성하는 신학대학교 지망생들이 그토록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이 대폭으로 줄어드는 일이 멀지 않았다는 경고신호이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종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30% 가량이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개신교회는 종교들 가운데 967만 6천명으로 불교신도수를 훨씬 앞섰고 한국에서 신자수가 제일 많은 종교단체가 되었었다. 매우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다.

그러나 모처럼 성장해 가는 교회의 앞날이 질게 흐린 것은 목회자의 부족이다. 목회 지망생들은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목회가 무척 힘든 직종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고도 목사지망생의 길로 선뜻 못 들어서는 이들도 많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등의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신부나 불승의 경우가 더 심하다.

그런데도 유독 정치지망생들이 저토록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언론과 국민들이 그토록 비판을 퍼 부어도 정치 지망생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야단법석들이다.

왜 그럴까. 목사는 '섬기는 지도자'(serving leader)이기 때문에 3D(어렵고, 더러운 일 해야 하고, 위험하고) 업종에 해당된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지배하는 지도자'(ruling leader)이기 때문에 권력, 금력, 명예욕을 손쉽게 확보한다.

아무튼 기본자격을 잘 갖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자비량 목회자를 많이 육성하면 어떨까. 천막 기술자였던 사도 바울이 모범사례 아닌가(행 18:3).

그리고 은퇴연령이 없는 종신제 목회도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 원래 제사장은 그랬다. 게다가 여성목회자를 적극 육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 아닐까.

The Christian Herald U.S.A.
크리스천헤럴드
www.christianherald.com
1977년 창간 신문 TV· 라디오(AM1650) · 인터넷 · 기독종합언론

미주본사
발행인 겸 회장 양준호 | CEO 백종윤
신문 편집고문 최선호 | 사업본부 광고 국장 송윤호
신문 편집국장 이영인 | 사업본부 홍보 국장 이영희
방송 방송 본부장 윤우경 | 경영지원본부 대외협력위원 윤상운
방송 TV편성제작국장 남영미 | 경영지원본부 팀장 수잰리
상임고문 서양훈
전화 (213) 353-0777 팩스 (213) 353-9777
인터넷 www.christianherald.com
www.cheraldus.com
E-mail press@christianherald.com
주소 2975 Wilshire Blvd., Suite 540
Los Angeles, CA 90010

한국지사
지사장 조미자 전화: 010-5449-9181
E-mail jomeeja0426@hanmail.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7 (효제동)
멕시코지사
지사장 최재민 전화: 213-675-7575
E-mail 4mexico@daum.net
주소 C/Los Arboles #6400 E-301 Col. La Mesa, Tijuana 22117
업무협약
CZONE 기독뉴스 (대표 문석진)
Flushing, N.Y. www.kidoknews.net
한국특파원
특파원 간수웅 전화: 032-831-2857
E-mail pamigan@hanmail.net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71 휴 빌리지 302호
CHTV한국지사
지사장 이귀범 전화: 010-2238-3999
E-mail Jameslee9069@gmail.com
주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4

교회사(인물 이야기 4)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강 순 혜 교수
에반겔리아대학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를 보며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그 기도를 드렸다. 성전에서 쉼 없이 무릎 꿇고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던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260-339)가 헤게시프스(Hegesippus, 110-180경)의 "회고록"을 인용해 전해주는 야고보의 순교장면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이고, 의인이라고 불린다. 이 야고보는 헤롯왕에게 순교당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별된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형제가 여럿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임을 알려 준다(마 13:55).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고 야고보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았던 것 같다(요 7:5).

한번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러 간 적이 있다(막 3:3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도 형제들은 보이지 않는다.

주님닮은 삶으로 복음전한 야고보

야고보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 참여한 것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모습을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교회 지도자 야고보

야고보는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예수님의 비밀 어록을 모아놓았다는 영지주의 문서 "도마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다. '주님, 곧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지요?' '어디로 가든지 의인 야고보를 따라가라. 그를 위해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느니라' 고 주님이 대답하셨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첫번 공의회의 장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독교 복음이 이방세계로 전해지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자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문의한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교회사의 첫 공의회가 열린다. 주후 52년 경이다.

이 회의에서 야고보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진지하고 격렬한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도록 하자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행 15장).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전한다(고전 15:7). 제롬의 책에 인용된 외경문서 "히브리인 복음"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 떡을 떼어 주며 부활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승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야고보가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일을 기록하면서 야고보를 게바,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두려워하며 떠난 사건을 볼 때,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갈라디아서 2장).

박해와 기근으로 고생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야고보 사도의 모습은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와 복음 전파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의인, 오블리아로 불린 야고보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야고보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했다고 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거나 기름을 바르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 나실인이었다. 뛰어난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의인" 혹은 "오블리아" 곧 "사람들의 요새"라고 불렸다.

순교자 야고보

야고보의 순교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의로운 야고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주이심을 믿게 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과 거짓 종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들은 야고보에게 "예수 때문에 길을 잃은 저 무리들을 설득해 주시오. 온 무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으니, 잘보이는 성전 첨탑 꼭대기에 올라 서서 저들을 저지해 주시오"라고 요구한다. 야고보는 성전 첨탑 위에서 올라 소리쳤다. "인자되신 예수께 대해 왜 내게 묻는거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구름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의인도 오류를 범하는구나! 우리에게 골치덩어리인 이 의인을 없애자. 이사야의 말처럼 자기 행한 일의 열매를 먹게 하자" 소리치며 그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너스는 아직 죽지 않은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다. 몽둥이를 가진 사람이 그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쳤다. 야고보는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순교했다.

그의 시신은 성전 가까운 곳에 장사되었고, 수십년이 지난 헤게시프스의 때까지 그 기념석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베스파티안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디도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인 69년경이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30-100경)는 예루살렘 포위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알고도 죽인 것에 대한 징벌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저없이 증언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2:26)고 선언하며 행동하는 믿음과 참된 기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의인 야고보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서신은 선행과 기도로 본을 보였던 야고보의 삶을 반영한다. 야고보서가 선행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고, 바울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위해 애쓰면서, 서신 중에 야고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야고보를 존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고, 바울이 "믿음의 사도"였다면 야고보는 "선행의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5:16, 4:17) 지금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겸손과 기도로 주님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형제를 세워나갈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다.

목회칼럼

당신의 疑心을 의심하라

이 민 규 목사
십자가은혜교회 담임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The Reason for God〉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의 의심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에서 자유할 수 없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들 역시 자신의 신념에 기초해서 유신론을 비판할 수 밖에 없다. 시공간에 갇힌 인간의 한계는 우주의 탄생을 추적할 뿐 확인할 길이 없으며, 미래를 예상할 뿐 미리 가 볼 수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무신론은 주장되어지면 될수록 그들의 종교가 되어진다. 신이 없음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며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해보라고 협박하고, 총부리를 머리에 대고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막아 보라고 하지만, 애석하게도 신은 그들처럼 조급하지 않다.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을 정죄할 심판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그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핵폭탄을 막을 길이 없다.

그들의 종교인 '나교'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종교라면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결을 커녕 운명으로 넘겨버리는 그들의 비합리성은 그들의 종교의 구원론을 형성한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라면 나는 그들의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치라고 여기고 사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점점 가치를 잃어갈 때의 당혹스러움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남한 최고의 인기가요는 조용필의 '허공'이라고 한다. '허공 속에 묻힐 그 날들'이라는 가사가 레닌과 스탈린의 유물사관에 잠식된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그들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에 함몰 되어져감을 보지 못한 채,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의 말로가 불쌍하다.

>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한 이는 없다. 인간은 겸손히 자신의 근원되시는 진리의 생명이 전하는 말씀에 귀기울여야 한다"

신이 없다고 치부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게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복잡한 미적분을 단순한 덧셈 정도로 단순화시키는 누를 범하는 것이다.

신이 있기에 생기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없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못풀었다고 문제의 출제자를 비난하는 교만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신의 종교가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종교인지를 정직하게 자문해야 할 일이지, 자신이 종교로부터 자유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할 일이 아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한 이는 없다. 최고의 부자도 어미가 있고, 최고로 가난한 나라의 홈리스도 생명을 준 이가 존재한다.

인간은 겸손히 자신의 근원되시는 진리의 생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

영화산책

기독교 신앙으로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읽기

영화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준 〈라이언〉(2016)을 통해 미국 감독 조합상 감독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가스 데이비스 감독의 두 번 째 장편영화이다.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를 포함해서 영화 제작진들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을 보면 감독이 영화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복음서'를 기반으로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충으로 해서 성경 인물로서 오랫동안 오해되어 온 막달라 마리아를 영화적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곧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실제로 누구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성경에 밝은 사람들이라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곱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여자 혹은 창녀일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눅8:1~3).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줄 정도로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막16:1, 9).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는 상태에서도 다른 여인 몇 명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무덤까지 따라갔다.(마27:56, 61), 장사된 후에는 시신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고(막16:1, 눅23:55-56), 요한 및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눅24:1~10). 특히 성경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종종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죄를 지은 한 여자"(눅7:37~50)와 동일시되었다. 영화 말미에 자막을 통해 소개되었듯이, 1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규정한 이유도 "죄를 지은 한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격에서 그녀를 배제시켰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었다. 그러다 2016년 교황청은 그녀를 사도 중의 사도로 복권시켰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즈음해서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영화는 대중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제작되었다. 무엇보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맡은 작가 필리파 고슬렛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다분히 해체주의적이고 페미니즘의 배경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사람들, 곧 여성 제자의 목소리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시나리오에 크게 반영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영화의 내용은 외경으로 알려진 '마리아 복음'에 기초한다. 이 외경은 주후 1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지주의적인 작품이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남녀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졌고,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마리아의 환상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리아 복음서를 영지주의적인 작품으로 추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하는지 계속 논쟁 중에 있으나, 마리아의 환상을 다루는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베드로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계시를 막달라 마리아가 환상을 통해 받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교황을 인정하지 않은 가톨릭교회는 베드로가 여성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좋아할 리 없었을 것이다.

영화에는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른 이미지를 구현하려 노력한 흔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죄가 있는 여자 혹은 창녀 이미지에서 그녀를 해방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영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녀의 종교성 혹은 영성에 집중하여 그녀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이며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의 갈등 관계이다. 영화는 이 부분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오른 쪽 옆에 있는 여성 이미지의 존재는 여성적인 면모를 가진 사도 요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외경을 바탕으로 그림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진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데, 영화에서는 이 관점을 따르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영화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바로 이런 장면에서 심한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지 영화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갖는 여성이었다. 친족들에게 강한 의지처가 되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읜 후로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을 맡아 할 정도로 그리고 오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기독교 신앙으로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읽기

막달라 마리아, 복음을 새롭게 보다

최성수 박사 (영화평론가, 조직신학자)

영화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가족이 소개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면서-단지 남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로-그녀는 가족에게 치욕을 안겨준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 받고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그를 따라 나선다.

그녀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종종 그녀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속내를 그녀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내비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감독은 이런 장면을 통해 그녀의 존재감이 남성들 중심의 그룹에서도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고난의 여정에서 그녀에게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기댄다고 여겨질 정도의 장면 연출이 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나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다소 극단적인 한 사례일 뿐이며, 다른 제자들 역시 기대와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그를 보는 시각은 달랐다. 그녀가 예수님을 따랐던 계기 자체가 제자들과 달랐다. 제자들처럼 가족을 두고 따랐다기보다는 당시 여성이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해방을 추구하는 이미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어떠한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졌던 가룟 유다와의 대화에서나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의 연약함을 돌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했다. 기적에 관심을 갖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을 보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게다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목적 지향적 남성과 관계 지향적 여성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대했다기보다는 오직 예수님 자신과 그분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던 남성 제자들은 목표가 좌절되었다고 여겨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믿지 못했던 것에 비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스스로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어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기에 그녀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시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는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걸까? 게다가 마가복음은 그녀를 일곱 귀신이 들려 예수님에 의해 치료를 받고 회복된 여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 여자의 증거를 대체 누가 믿을 수 있을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하게 하셨다. 부활의 증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명단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이기보다 오히려 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 기억해야 할 존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능력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여성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이 영화를 계기로 사라질지는 모르겠다. 워낙 오랫동안 폄하되었기 때문에 제자리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게다가 개신교는 정경이 아닌 외경인 '마리아 복음서'를 근거로 성경의 내용을 첨삭한 사실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전에 개봉한 〈노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냉랭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졌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누구이든 영화에서 표현된 바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에서 그녀가 남성 제자들과 차이를 보여준 사실에 천착하여 그녀를 재조명할 필요는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 〈막달라 마리아〉가 의미 있는 까닭은 사회적으로 작은 자로 취급당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복음을 새롭게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영화를 처음부터 폄하하지 말고, 부디 복음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글쓴이 최성수는 서강대 철학을, 본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호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특히 영화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신학과 영화라는 주제를 깊이 있고, 적절하게 녹여 독자와 만나고 있다.

[문화선교연구원]

4/23/2018 – 4/29/2018 TV편성표 채널 56.9

미주한인 최초 크리스천 이민자들에 의한 이민자들의 방송 (24Hours/7Days)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으로 전세계 어디서든 YouTube Live Youtube Live Stream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월 (04/23)	화(04/24)	수(04/25)	목(04/26)	금(04/27)	토(04/28)	일(04/29)	
0:00	임팩트 오브 로고스(재)	명쾌통쾌(재)	능력의 기도(재)	하나님애사람(재)	체인지 더 월드(재)	성령의 장맛비(재)	매일주와 함께(재)	0:00
0:30			새롭게하소서A(재)	성경강해2(재)				0:30
1:00	성경강해2(재)	멘토링 코리아(재)		미주평안교회(재) 임승진 목사	평강제일교회2(재) 이승현 목사	포도나무교회(재) 여주봉 목사	조이플제너레이션(재)	1:00
1:30	서울해입은교회(재) 최모세 목사	미션X파일(재)	둘로스 선교교회 (재) 황의정 목사	홀리샤우트 워십(재)	시온세계선교교회(재) 신현옥 목사	차영아 목사의 뇌이야기(재)	뉴제너레이션워십(재)	1:30
2:00	차영아 목사 뇌이야기(재)	새에덴교회(재) 소강석 목사	행복만들기(재)	드림워십(재)	멘토링 코리아(재)	프레젠스워십(재)	행복만들기(재)	2:00
2:30	군포제일교회(재)X 권태진 목사			매일주와함께(재)	임팩트 오브 로고스(재)	희망찬교회(재) 정복규 목사		2:30
3:00	미션X파일(재)	체인지 더 월드(재)	감사한인교회(재) 김영길 목사			명쾌통쾌(재)	유니온교회(재) 김신일 목사	3:00
3:30	행복으로의 초대(재)		영상구역예배(재)	주님의영광교회(재) 신승훈 목사	나성 소망교회(재) 김재율 목사		연세중앙교회 찬양팀(재)	3:30
4:00		성경적 한의학(재)	영광빛교회(재) 우대권 목사	평강제일교회1(재) 이승현 목사	백배교회(재) 박형섭 목사	드림워십(재)	백송교회(재) 이순희 목사	4:00
4:30	드림워십(재)	은혜한인교회(재) 한기홍 목사	뉴제너레이션워십(재)	엘라찬양팀(재)	충현선교교회(재) 민종기 목사	비전워십(재)	평강제일교회1(재) 이승현 목사	4:30
5:00	7분 중보기도 / 뉴제너레이션워십(본)	7분 중보기도 / 비전워십(본)	7분 중보기도 / 드림워십(본)	7분 중보기도 / 새빛워십(본)	7분 중보기도 / 프레젠스워십(본)	7분 중보기도 / 마커스워십(본)	7분 중보기도 / 성령의 장맛비(재)	5:00
5:30	하나님애사람(본)	조이플제너레이션(본)	성경강해2(본)	능력의 기도(본)	미션X파일(재)	글로리아 선교사(본)		5:30
6:00	매일주와함께(본)	오 자유여(재)	임팩트 오브 로고스(본)	명쾌통쾌(본)	행복만들기(본)	행복으로의 초대(본)	코너스톤교회(재) 이종용 목사	6:00
6:30							멘토특강(재)	6:30
6:55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6:55
7:00	글로벌 투데이(본)	미주평안교회(본) 임승진 목사	평강제일교회2 (본) 이승현 목사	포도나무교회(본) 여주봉 목사	홀리샤우트워십(재)	조이플제너레이션(재)		7:00
7:30	영상구역예배(본)	영상구역예배(본)	시온세계선교교회(본) 신현옥 목사	차영아 목사 뇌이야기(본)	성령의 장맛비(본)	체인지더 월드(본)	CHTV 초대석(재)	7:30
8:00	전문가와 함께 마동환의 법률상식(본)	주의 은혜라A(본)	전문가와 함께 마동환의 법률상식(재)	김권수 목사의 성경통독 5강 (본) 출애굽기 1 (1-19장)			주의 은혜라B(재)	8:00
8:30	에즈라 성경통독(재) 46		에즈라 성경통독(재) 47		에즈라 성경통독(재) 48	서울해입은교회(본) 최모세 목사		8:30
9:00	둘로스 선교교회 (본) 황의정 목사	예루살렘교회(본) 문제선 목사	나성 소망교회(본) 김재율 목사	성경강해1 (재)	JHM영성컨퍼런스(본) 캘빈 여 목사	순복음서울초대교회(본) 전태식 목사	나성열린문교회(본) 박헌성 목사	9:00
9:30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본)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본)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본)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본)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본)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본)	새에덴교회(본) 소강석 목사	9:30
10:00	예방주사(본)	CBS성서학당_김기석 (본)	CBS성서학당_신우인(본)	CBS성서학당_김윤희(본)	미션 현장속으로(본)	주의 은혜라A(재)		10:00
10: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본)			10:15
10:30	다음세움(본)						연세중앙교회 찬양팀(재)	10:30
10:40		CBS아카데미 숲 A(본)	실화극장 새롭게하소서(본)	CBS아카데미 숲 B(본)	성서 700 도시여행 1(본)			10:40
11:00								11:00
11:4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본)					새롭게하소서A(본)	새롭게하소서B(본)	
11:30	명쾌통쾌(재)	주님의영광교회(본) 신승훈 목사	백배교회(본) 박형섭 목사	멘토링 코리아(재)	유니온교회(본) 김신일 목사			11:30
12:00		순복음진주초대교회(본) 이경은 목사	충현선교교회(본) 민종기 목사	주의 은혜라B(본)	달리는 구원 열차(본)	군포제일교회(본)O 권태진 목사	은혜한인교회(본) 한기홍 목사	12:00
12:30	영광빛 교회 (본) 우대권 목사	평강제일교회1 (본) 이승현 목사	하나님애사람(재)		백송교회 (본) 이순희 목사	달리는 구원 열차(재)	JHM영성컨퍼런스(재) 캘빈 여 목사	12:30
13:00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13:00
13:03	10분 칼럼	10분 메시지	10분 메세지	10분 칼럼	10분 메시지	10분 칼럼	10분 메세지	13:03
13:15	7분 중보기도	7분 중보기도	7분 중보기도	7분 중보기도	7분 중보기도	7분 중보기도	7분 중보기도	13:15
13:30	에즈라 성경통독(재) 46	글로리아선교사(재)	에즈라 성경통독(재) 47	능력의 기도(재)	에즈라 성경통독(재) 48	성경적 한의학(재)	성경강해1(재)	13:30
14:00	성령의 장맛비(재)	오 자유여(재)	임팩트 오브 로고스(재)	오 자유여(재)	행복만들기(재)	김권수 목사의 성경통독 5강 (재) 출애굽기 1(1-19장)	코너스톤교회(재) 이종용 목사	14:00
14:30							오 자유여(재)	14:30
15:00	새롭게하소서A(재)	미주평안교회(재) 임승진 목사	평강제일교회2 (재) 이승현 목사	포도나무교회(재) 여주봉 목사	성경적 한의학(재)	글로벌 투데이(재)		15:00
15:30		조이플제너레이션(재)	시온세계선교교회(재) 신현옥 목사	차영아 목사 뇌이야기(재)	매일주와함께(재)	체인지더 월드(재)	명쾌통쾌(재)	15:30
16:00	전문가와 함께 마동환의 법률상식(재)	새롭게하소서B(재)	전문가와 함께 마동환의 법률상식(재)	새롭게하소서B(재)				16:00
16:30	성경강해1(본)		미션X파일(본)		성경강해1(재)	서울해입은교회(재) 최모세 목사	나성열린문교회(재) 박헌성 목사	16:30
17:00	둘로스 선교교회 (재) 황의정 목사	예루살렘교회(재) 문제선 목사	나성 소망교회(재) 김재율 목사	마커스워십(재)	JHM영성컨퍼런스(재) 캘빈 여 목사	순복음서울초대교회(재) 전태식 목사	새에덴교회(재) 소강석 목사	17:00
17:30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재)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재)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재)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재)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재)	에스더 선생님의 아트클라스 E/I(재)		17:30
18:00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성서 700 도시여행 1(재)	주의 은혜라(재)	18:00
18:30	멘토특강(본)	CBS성서학당_김기석(재)	CBS성서학당_신우인(재)	연세중앙교회 찬양팀(본)	CBS성서학당_김윤희(재)			18:30
19:00				코너스톤교회(본) 이종용 목사		CHTV 초대석	순복음진주초대교회(재) 이경은목사	19:00
19:10					CBS아카데미 숲 B(재)			19:10
19:30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장례플래너 조미라 상담사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재) 장례플래너 조미라 상담사		전문가와 함께 (재) 마동환의 법률상식	감사한인교회(본) 김영길 목사	19:30
19:55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5분비지니스 (청한의원 16)			19:55
20:00	홀리샤우트워십(본)	주님의영광교회(재) 신승훈 목사	백배교회(재) 박형섭 목사	김권수 목사의 성경통독 5강 (재) 출애굽기 1(1-19장)	유니온교회(재) 김신일 목사	뉴제너레이션워십(재)	순복음서울초대교회(재) 전태식목사	20:00
20:30	비전워십(재)	순복음진주초대교회(재) 이경은 목사	충현선교교회(재) 민종기 목사		달리는 구원 열차(재)	군포제일교회(재) O 권태진 목사	CHTV 초대석(재)	20:30
21:00	영광빛 교회 (재) 우대권 목사	평강제일교회1 (재) 이승현 목사	글로벌 투데이(재)	예루살렘교회(재) 문제선 목사	백송교회 (재) 이순희 목사	달리는 구원 열차(재)	은혜한인교회(재) 한기홍 목사	21:00
21:30	성경적 한의학(재)	주의 은혜라(재)	로맨스 처치(재)1	주의 은혜라(재)	멘토링 코리아(재)	주의 은혜라(재)	JHM영성컨퍼런스(재) 캘빈 여 목사	21:30
22:00	예방주사(재)		예방주사(재)		미션 현장속으로(재)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재)		미션 현장속으로(재)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재)	22:00
22:30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글로리아선교사(재)	마커스워십(재)	22:30
23:00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3분비지니스(이레건강-에미나99)	23:00
23:03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재)	CBS아카데미 숲_A(재)	10분 메세지	10분 칼럼	10분 메시지	10분 칼럼	10분 메세지	23:03
23:20	다음세움(재)		실화극장 새롭게하소서(재)	새빛워십(재)	성서 700 도시여행 1(재)	새롭게하소서A(재)	엘라찬양팀(재)	23:15
23:30				코너스톤교회(재) 이종용 목사			감사한인교회(재) 김영길 목사	23:30

-E/I 심볼은 16세 이하 어린이들의 교육적 학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은 본방송을 (재)는 재방송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 편성표는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송설교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전화 (213) 353-0777
-방송설교 선교비 후원 계좌정보 (은행명: Bank of Hope / 계좌번호 : 6400393468 / ABA :122041235 / Swift Code : NARAUS6L / 주소 : 3200 Wilshire Blvd.LA CA 90010 / 전화 : 213-427-1000)

CHTV제작 프로그램 | CHTV방송 설교 | CBS 방송 프로그램 | MOU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

미주판 새롭게 하소서

진행 윤 우 경 방송본부장

"주의 은혜라" 간증 프로그램은 로컬은 물론 온열방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으로 21년차 방송인 윤우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 나눕니다.
출연문의 및 추천 chief@chtvus.com

윤 향 금 사모 / 예수가정치유상담원장

제89화 4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한국에서 1992년부터 개 교회와 대학 채플 등을 순회하며 내면치유와 회복사역을 하고 있는 윤향금 사모는 자작 모노드라마와 강연,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간다. 고등학교 시절 예수 영접 교리문답을 하던 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심장에 꽂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기도를 하며 지금까지 수백 차례의 집회에 이어 생명이 허락되는 한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기를 고백.

샘 신 목사 / 오직예수선교교회 담임, 남가주 목사회 회장

제90화 4월 26일 목요일 정오

초등학교 때 이민 온 1.5세대로 교계의 세대 교체에 신선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목회자. 다민족 목회를 추구하며 한인 타운에서 개척 2년 차. 어릴 적 인종 차별적 Bully 를 경험하면서 사회의 리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컨트롤 하는 위치에 서야겠다는 일념으로 경찰에 투신, 알래스카 최초 한인 경찰로 활동. 한인들을 돕고자 남가주로 이주, 오렌지카운티 지역 경찰에 재입문. Under Cover 미션을 수행 하던 중, 로컬 갱단과 엮이면서 불의에 제소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되고자 한 목적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울림 깊은 고백이 여기 있다.

Wellness선도기업 Dr.Gene 닥터진(주)

차별화된 닥터진 수소수

수소수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수소수란?

순수한 물에 환원력이 있는 수소분자(H_2)가 다량으로 함유된 물입니다.

Hydrogen water refers to enrich water with hydrogen molecules (H_2) that have a reduction potential.

- 모든 질병의 80%는 활성산소가 원인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의학보고서)
- 수소수가 답이다 : 최고의 천연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인 하이드로실라디칼(Hydroxyl Radical)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네이처메디슨 Nature Medicine)
- 수소수의 효능은 세계적인 의학지 네이처메디슨(Nature Medicine) 외 권위있는 400여편의 논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수소수가 아닙니다.

- 용존수소 1000ppb이상 수치가 나옵니다.
- 용존수소 3일간 보존됩니다.
- 온수(80℃)도 수소가 용존됩니다.
- 필터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물(H_2O)에서 산소(O_2)와 수소(H_2)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분산, 용존시키는 특허기술입니다.

The patented technology rapidly and safely separates water into hydrogen (H_2) and oxygen (O_2), and enables hydrogen to be diffused and dissolved into water molecules.

President, Byeong–Yong Jeong 정병용 대표이사

해외선교 및 해외여행시 물에 대한 걱정! 닥터진 수소수가 해결해 드립니다.

닥터진 특허 및 인증 Patents Certificates

- 벤처기업확인서 Certificate of Venture Business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Certificate of 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Certificate of INNO-BIZ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Research Institute
- 일본 PSE 인증서 Certificate of Japen PSE
- 디자인 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한국 KC인증 Electricity Safety Certificate
-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9001:2008
-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14001:2004
-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 실용신안등록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 전자파인증 Electromagnetic Safety Certificate
-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서비스표등록증 Certificate of service mark registration
- 수출유망중소기업 Promising Export Firm
- 미국FDA인증 Registered the U.S FDA

www.drgene.co.kr

미국지사
4055 Wilshilre Blvd #345 LA CA 90010
213.999.3978

CHA ACUPUNCTURE 차 한의원
2837 Hyperion Ave. LA CA 90027
323.912.9200

Wilshilre Norton 지점
4055 Wilshilre Blvd #308 LA CA 90010
213.381.7755 323.708.9191